

# 나주 미래산단 '투트랙' 집중 분양

〈연관기업 유치+중국투자〉

## 혁신도시 이전 기관 관련 134개 기업 공략 투자 유치 기여자 인센티브 지급도 구체화

나주시가 미래일반산업단지(이하 미래산단)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연관기업 유치와 중국 투자자를 '투트랙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성훈 나주시장은 1일 7월 정례회의에서 "민선5기 4년을 시작하는 첫 날에 새로운 마을가집으로 10가지 시책을 위주로 미진했던 분야의 마무리

에 힘쓰겠다"며 투트랙 방식의 지역 산업단지 비전을 제시했다.

나주에는 현재 미래산단을 포함해서 국민일대, 신도산단 등 130만8000㎡ 규모의 산업단지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는 혁신도시 15개 이전 공공기관의 연관기업으로 분류된 435개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기능별, 성질별 분류를 통해 134개 기업을 최종 유치대

상 기업으로 분류, 업무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 부서와 기업간 맞춤형 지원전략을 제공하기로 했다.

임 시장은 "201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도권 소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 공무원이 나서기로 했다"며 "134개 민간기업은 주로 한전, 한전kps 등 에너지 관련 기업군과 우정사업정보센터, 인터넷진흥원과 업무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군, 콘텐츠진흥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과 관련 있는 문화예술 기업군"이라고 덧붙였다.

또 투자유치에 실질적 기여를 한

공무원, 시민, 단체에 대한 성과급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특별승급 및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와 승진 우대 등 인사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중전 성과급 지원 규정은 제조업 등 공장 유치를 경우 MOU 체결 시점, 관광·산업단지와 SOC 민자유치의 경우에는 부지 매입과 인허가 단계에서 투자금액 및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조업 등 공장유치의 경우 공장 건물 착공시점이나 부지매입 단계로 격상하는 등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



**'희망나눔' 이·미용 봉사** 강진군이 운영하는 '행복 25시 희망나눔사업단' 소속 이·미용 관련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27일 도암면 옥전마을을 찾아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을 손보고 있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수도, 전기, 가스, 보일러, 이·미용, 발바사지, 도배, 장수사신, 밑반찬, 청소, 소규모 수리 등 10개 단체 64명이 참여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1@

# 강진 청자와 중국 서예의 만남

청자명인 김경진씨  
중서예가 장광흥씨  
한·중서 '陶書 작품전'



지난달 김경진 강진청자명인(왼쪽) 작업실을 방문한 장광흥 총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 전통의 맥락을 조명하는 강진청자 명인과 중국 10대 서예가의 도자와 서예의 만남 '도서(陶書) 합작 작품전'이 오는 8월과 9월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청자명인 1호인 강진명인 도자기 김경진(53)씨의 초벌상태 청자표본 위에 중국 10대 서예가인 청도구실기술대학 대졸(大拙) 장광흥(張光興·63) 총장이 노자, 도덕경 등 중국 고전에서 나오는 사자성어 등을 써내려 간 작품들이 전시된다.

전시할 작품은 '위도일손'(爲道

日損) '해남백천'(海納百川) 등의 글귀로 채워진 매병과 주병, 향아리 등 총 60여 점으로, 전시장소는 서울 인사동과 중국 청도다.

이번 전시회는 장 총장이 김 명인의 작업실을 전격 방문해 상호 합의를 하면서 급급함을 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1@

장 총장은 "천년의 유서가 깊은 고려청자와 만나 합작전시회를 갖게 돼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국 서예와 한국 청자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문화의 통로가 생겨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1@

# 농어촌공 박한중 차장 담양군 유공자상 수상



담양군은 1일 민선5기 3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담양군 발전에 기여한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박한중 차장에 대해 '2013년도 담양군 유공자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사진)

박 차장은 자원 확보 및 홍수 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담양댐·광주댐 독육이기 사업에 이바지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자재 구매 시 관내 생산제품을 주도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추진위원회 출범 500여명 위원 구성

담양군과 (재)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추진위원회가 지난 27일 담양 문화회관에서 군민과 다양한 계층의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형식 담양군수와 공동개최기관인 신원섭 산림청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재)담양세

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이사, 감사 등 임원들과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 군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출범식은 전남도립국악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박람회 추진 경과보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위촉장 수여, 범군민 결의문 낭독, 한우리 난타팀의 축하 공연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추진위

원회는 모두 500명 내외로 기관단체협의회와 행정지원협의회, 사회단체협의회, 대나무산업협의회, 출향인협의회 등 분야별 협의체로 구성됐다.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2015년 6월27일부터 50일간 담양 죽녹원 일원에서 열린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 장성군 저소득층 문화이용권 사업 호응

장성군은 1일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키 위해 추진한 문화이용권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주민 1324명에게 문화카드 발급을 모두 완료했으며, 5

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과 도서·음반구입 등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하는 곳에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달 현재까지 사용실적은 65%에 달하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체관람 행사와 도서·음반·영화티켓 구매대행서비스를 통해 문화카드 이용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등의 비용을 지원해 문화 격차를 줄이는 사업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전북

#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 완료

생활형 공공디자인 명품길  
정읍시 6억9000만원 들여

정읍시가 생활형 공공디자인 명품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해온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완료했다.(사진)

시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의 천년의 사랑과 기다림을 테마로 '전국 녹색 베스트길 백제가요 오솔길', '정읍사 공원 정비 계획' 등과 연계해 '정읍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적용해 정읍사 문화거리 조성

공사를 추진해왔다.

안전행정부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에는 총사업비 6억9000만원이 투입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읍사공원 진입도로를 정읍시 공공디자인 랜드마크 거점지로 조성하고 미래 지향적 생활형 도시경관 모델로 제시해 도시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정읍천변(물놀이장 등) 이용객과 시민에게 휴

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변에 산재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여러 개의 표지석을 정비했고, 데크와 원터를 조성하고 지주 안내간판을 통합설치했다.

또 정읍사 공원 입구에는 포켓공원을 만들어 작은 음악회 등 문화공연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 문화와 젊음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전북 과학대 옹벽 158m에 정읍사가요에 등장하는 부분나루, 연화무늬, 달의 조형물 등을 제작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하기도 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



인도변 수벽조성, 디자인 펜스와 휴게용 의자 설치, 인도 및 가로등 도색 등을 통해 역사·문화·생활이 어우러지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길로 조성됐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사업이 완료

# 단신

# 남원시 지열 이용 청사 냉난방 시스템 가동

남원시가 1일부터 지열을 이용한 청사 냉난방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남원시는 "그동안 청사 지열 냉난방시설 시운전 및 점검을 모두 마치고 실제 적용온도 준수 및 하절기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에 맞춰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시 청사 지열 냉난방은 최근 원전

가동 정지로 최악의 전기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절약과 환경오염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청사 지열 냉난방시설 가동으로 연간 8천300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

# 고창군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2위

고창군은 1일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13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시군 평가에서 군 가운데 2위로 선정돼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실적 및 세수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우

수시군을 선정했다.

군은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자 소유부동산, 예금, 급여소득, 관공사업 여부 등을 집중조사 후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상속·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현장추적 징수활동을 펼쳐 왔다.

/고창=유형원기자 cy0370@



장마 대비 배수로 정비  
2일부터 장마에 따른 집중 호우가 예보되면서 1일 오후 남원지역 한 농민이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장마철 많은 강우와 강풍으로 농작물 침수, 병해충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배수로 정비 등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남원=백선기기자 bs8787@kwangju.co.kr

# 부안군 내일까지 우리밀 수매 150농가 6억8000만원 소득 기대

부안군은 1일 "오는 3일까지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의 주관으로 2013년 산 우리밀을 수매한다"고 밝혔다.

우리밀은 현재 지역 내 150여농가가 190ha 규모의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수매량은 76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한

우리밀은 (주)우리밀, iCOOP 생활밀영농조합법인의 주관으로 2013년 산 우리밀을 수매한다"고 밝혔다.

우리밀은 현재 지역 내 150여농가가 190ha 규모의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수매량은 76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서 수매한

한 종자확보 등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부안군은 겨울철 소득작목으로 우리밀 재배를 위해 농가에 매년 비료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조저장 시설을 설치해 농가수매와 저장, 출하를 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정재용기자 jgy0681@

#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 브랜드 선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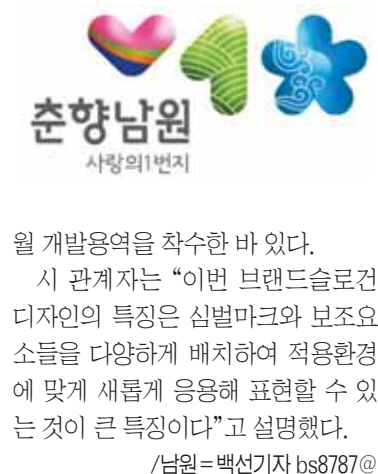
남원시가 도시 이미지 브랜드화와 비전을 함축한 브랜드슬로건(BI)을 개발하고 지난 27일 유유부주 활용방안 시민공청회에서 선포식을 가졌다.

브랜드슬로건은 남원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한 춘향을 전면에 내세워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로 정하고 디자인은 사람의 도시를 상징하는 '하트'와 전통문화의 으뜸도시를 나타내는 '숫자1', 시화인 '철쭉'을 진

취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해 남원시민의 독특한 이미지로 표현했다.(사진)

이번에 개발된 슬로건은 지난 1998년 개발돼 사용하고 있는 심볼마크(CI)만으로 남원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남원시는 지난 2010년 시민공모를 실시했으나 부합하는 제안이 없어 디자인 전문가에 의뢰, 지난 2012년 7



# 전주시 평생교육원 서신도서관 책 살균소독기 설치

전주시 평생교육원 서신도서관은 최근 시민의 위생적인 독서환경을 위하여 바이러스성 질환의 예방과 미세 먼지 제거, 세균 소독이 가능한 책 살균소독기를 설치했다.

서신도서관 일반자료실과 아동실에 각 1대씩 설치된 책 소독기는 자외선 램프와 송풍장치를 이용해 책 내

부까지 골고루 세균과 바이러스, 먼지를 제거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4권의 책을 동시에 소독할 수 있다.

자외선 살균과 천연허브 향균제를 이용함으로써 인체에는 해가 없고 향기도 좋으며, 작동방법도 간단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